

전국 자원봉사자 영덕으로... 6천여명 피해복구에 구슬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영덕군 축산면 태풍 '콩레이'로 인한 침수 주택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육군 장병들이 경북 지역 일대에서 태풍 '콩레이' 침수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경북경찰청 기동대원들이 영덕군 강구시장에서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덕군에 특교세 10억 지원
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전국 각지 온정의 손길 답지

■영덕군, 태풍 피해복구에 총력전

영덕군은 태풍 콩레이로 침수된 주택·상가의 복구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태풍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83.5mm의 폭우가 내려 주택 1140채가 침수됐고 2채는 반파됐다. 328가구 551명의 이재민도 발생해 관공서와 교회,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설물도 공공시설 292개소와 사유시설 1128개소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태풍피해복구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는 총 6000여명으로 수재민 가구를 방문해 물에 젖은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을 들어내고 흙탕물로 얼룩진 방을 청소하며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군은 태풍피해가 발생한 당일 도자원봉사센터와 군자원봉사센터, 적십자봉사단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고 태풍피해가 심한 강구면 오포리와 축산면 축산리 현장에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15년 만의 태풍피해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치해 하루빨리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도 10일 오전 군청 재난상황실을 찾아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강구면 금호리에서 피해복구를 돕는 청송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9일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대구경북상생협력발전을 실천하는 뜻에서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앞서 대구시는 8일부터 대구시시설공단 소속 살수차 1대, 덤프차 3대, 굴삭기 등 복구장비 12대를 보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8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무원들이 모금한 성금 1500만원과 포항시새마을회에서 김장 500박스를 전달했으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5000만원을 전했다.



영덕군은 태풍 콩레이로 침수된 주택·상가의 복구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태풍피해를 복구 중인 자원봉사자들(사진=영덕군 제공)

또 최기문 영천시장이 6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덤프트럭 2대를, 고윤환 문경시장은 영덕군 축산면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격려했다.

영덕으로 향하는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서울과 충북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태풍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이재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현재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면동시장과 축산면 일대에는 경북도, 충북도, 서울 강남구, 경기 남양주시, 구미시, 경산시, 안동시, 문경시, 고령군, 봉화군, 군위군, 적십자사, 경북안전기동대, 경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북경찰청, 육군 50사단 등 20여개 단체, 1300여명이 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태풍 '콩레이' 피해 컸던 영덕군에 특교세 10억 지원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영덕군에 재난안전 특교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영덕군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영덕군의 교량 파손 등 공공시설과 주택·상가지역의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영덕에는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시장과 주택 곳곳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겪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영덕으로 내려가 태풍 응급복구에 참여하며 조속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영덕군의 피해 현황, 이재민 수 및 과거 지원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김부겸 장관은 "특교세 지원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덕군 주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 특교세를 신속히 교부하여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건의

경북도가 10일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가 난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태풍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평균 261.4mm(영덕군309.0mm)의 호우가 내려 사망 1명과 주택침수 1113여동 등의 피

해가 났다.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15일부터 중앙정부와 함께 정밀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영덕군의 선포기준 피해액은 6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밀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에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감면, 국제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한전·한전KDN '출장비 횡령' 1·2위 차지

한전·한전KDN·한수원 3사
전체 횡령 건수의 70% 차지
한전KDN 직원 1명... 최대
359차례 걸쳐 출장비 횡령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 공공기관들의

출장비 부정 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비 횡령액수 규모가 가장 큰 기관에는 빛가람(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 2곳이 각각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

구)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를 횡령한 건수는 총 7980건에 전체 횡령 금액은 약 6억956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과 부정 사용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3064건(1억2644만8000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한전KDN 882건(1억2507만5800원), 한국수력원자력 1744건(1억1986만2880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KDN은 직원 1명이 최대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의 출장비를 횡령한 것으로 적발돼 개인 횡령 건수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직원은 출장비를 허위로 지급받기 위해 팀원들에게 개인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사용·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경우 지난 2016년을 제외하면 2012

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적발 건수는 전년도 374건에 비해 714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심에서 수백차례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여은 기자

2018 GYEONGSANGBUK-DO YEONGJU PUNGGI GINSENG FESTIVAL

2018 경북 영주 할망중심, 행복영주!

풍기인삼축제

2018. 10.20(토)~10.28(일) 9일간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변

주최·주관 | 영주시·(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후원 | 경상북도·SK머티리얼즈
문의 | 영주시청 새마을관광과 054-639-6602~3,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635-0020
www.ginsengfestival.com

풍기인삼축제 행사체험 및 볼거리

- 인삼캐기 체험
- 인삼쌈지 경연대회
- 인삼즉석
- 인삼 비누만들기
- 인삼 장사 씨름대회
- 소백산 인삼 가요제
- 우량 인삼 선별대회
- 2018 영주 소백힐링 걷기대회

*일부행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 제16회 문관부 장관기 전국보디빌딩대회
- 경미스터&미즈 경북 총상선발대회
- 전국인삼 건강 댄스경연대회
- 천연염색풍기인간패션쇼
- 인삼 병주 만들기

대구시, 국내 최대 패션쇼가 펼쳐진다

12-14일 삼성창조캠퍼스서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2018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이 대구의 패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삼성창조캠퍼스에서 패션과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쇼룸(showroom) 축제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패션문화를 즐길 수 있는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패션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프랑스·스위스 디자이너 패션쇼 △뮤지컬 공연 및 드라마와 어우러진 패션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모델 패션쇼 △축제를 강물에 섬유패션작품을 입혀 전시하는 섬유패션 파사드, 포토존 등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패션을 산다'라는 주제로 △패션디자이너 콘서트 수상작 전시 △대구 라이프스타일 패션마켓 △패션아트 클래스 등 패션제품을 직

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돼 있다.

이번 축제의 메인행사인 패션쇼는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축제다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 잔디광장을 런웨이로 사용할 예정이다.

첫날인 12일은 개막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오후 7시, 오프닝 패션쇼는 대구 패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대표 패션디자이너 허 김선자의 삶을 뮤지컬 배우의 공연과 함께 오마주 패션쇼로 진행된다.

특히, 세계 최대 섬유행사인 텍스월드에서 인정받은 프랑스 꾸뛰르맞춤복연합회, 스위스 신진디자이너 초청을 통해 국제 패션문화를 공감하고 교류하는 패션쇼를 연출한다.

이외에, 드라마와 융합해 패션 근대사를 표현한 시민참여 패션쇼, 현대무용과 융합한 퍼포먼스형 패션쇼, 지역 특화산업인 안경과 주얼리 융합 패션쇼도 행사기간 내에 선보인다.

대구패션산업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삼성창조캠퍼스 건물에 국내 최초로 대형 패션작품을 입힌 '섬유패션 파사드'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섬유패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패션행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각종 공연, 스타일 뷰티체험, 패션마켓, 스탬프투어 및 각종 이벤트가 야외 공연장에서 매일 진행된다.

이번 패션쇼는 3일간 총 9회 진행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053-721-7438)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축제는 패션과 문화를 융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축제형 문화패션쇼로 기획했다. 패션과 문화에 관심있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고,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섬유패션도시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골목 북성신협 주차장에서 열린 '2017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참가자의 손간이던 주제로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고 있다.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30일까지 80명 선정 여성위원 우선적 위촉

대구가 현행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10일-30일까지 대구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80여명으로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통건축, 건축민원, 토목·토질, 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 미술·건축, 조경, 도시, 범죄예방,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또한,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건축위원회는 대구시 대형 건축물의 건축계획, 구조안전, 교통계획 등을 심의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도시 공간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에 전문 분야별 균형 있는 위원 위촉을 위해 지원자에 대한 전문지식, 경력 사항 등에 대한 확인 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신청은 대구시 누리집(www.daegu.go.kr) 고시공고에서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대구시 건축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전자우편(damsilo@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가을·겨울철 집단 식중독 방지 총력

식중독 대응 협의체 실무회의 효율적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구축

대구가 지난 8일 가을·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학교급식 식중독대응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의 주요내용은 △2018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가을·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발생 대비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 계획 발표 △대구 지역 대규모 집단 학교 급식소 발생 등 현안사항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지역에서도 발생한 조각케익 식중독 사고 등 동시 다발적 대규모 집단 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과 기관간 협업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과 예로사항 등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에 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김연신 대구시 식품관리과장은 "이번 식중독 대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삶 바꾸는 혁신우수사례 공유 한마당

대구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수사례 10건 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가 11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부혁신 과제 중 대구시 각 부서, 구·군, 공사·공단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0건에 대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를 포함한 기초 지자체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해당 부서(기관)에서 직접 사업의 추진배경, 내용과 추진성,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냈는가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이다.

대구시는 △적극적인 폭염대책 추진으로 대구를 대쿨(大COOL) 도시 대구로! △지역 대표 청년취업 프로젝트 '지역 유망인재 우수중소·중견기업 정착지원(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으로 고용 쇼크 탈출! △(사회적 경

제기업 청소년의 미래를 CO-DESIGN하다.) 053! 일상구조대 △지역주민의 손으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

△동구는 도시 흉물이 희망의 집으로 '멋진동구, 행복동지 사업' △남구는 주민이 만들어가는 2000배 행복마을 △북구는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설치 운영 △수성구는 협공공간의 대변신 전피화(전봇대에 피는 꽃) 사업 △달서구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존과 상생, 유패시장 상생 스토어 사업을 발표한다.

대구시설공단에서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공 시설물 환경 제공 사업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는 지난 4월 30일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기관별·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운영, 핵심정책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민·관, 기관간 협업·협치 행정 구현 및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 및 구·군, 공사·공단의 직원 180명이 타 부서,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참가한다.

정부혁신 전문가인 정부만 인제대 교수, 이항수 건국대 교수,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등 3명의 전문가 심사위원과 10명의 시민심사위원이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창의성 등 세부심사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 60%와 시민 심사 40%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게 되며, 대상에서 은상까지 우수사례 5건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구시 대표 우수사례로 제출하게 된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여부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있다"며 "시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무인단속용 CCTV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했다

88억 투입 총 238대 설치해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확보

대구시가 무인단속 CCTV를 교통사고 사망지 및 다발장소에 59대 설치, 2016년, 2017년에 설치한 39대에 CCTV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68건이 줄어 30%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 전체에 운영 중인 단속용 CCTV는 총 349대이며, 이중 경찰청에서 설치

한 물량을 제외한 대구시에서 설치한 물량은 총 71대이다. 전체 단속건수 5만6천41건 중에서 앞산터널 구간단속 10.5%, 신호위반 9.8%, 과속단속이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8년 상반기에 설치한 20대를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초등학교 주변에 29대를 추가 설치하면 교통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단속CCTV 설치 5개년

('18~'22년) 계획에 따라 총 88억 원을 투입, 총 238대를 설치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확보를 방침이다.

김종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무인단속 CCTV 설치의 야간시간대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며, 단속에 앞서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화 한통이면 OK!

120

달구벌콜센터



01 120달구벌콜센터 연중무휴!
평일 08:0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02 상담분야
여권, 카탈등등, 교통, 상수도,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시장인민

03 이용방법
- 전화, 문자 상담(국번없이 120)
- 예약상담(홈페이지에 예약하시면 일하는 시간에 상담)
- 온라인 상담(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 외국어 상담(영어, 중국어, 일본어)



04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상담사와 연결이 편리했습니다. 모든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과정을 문자로 알려 줍니다.

민원 제안여기다
두드리스

온라인 민원 제안 대표창구

두드리스 검색

인터넷, 모바일로 언제나 ~
http://dudeuriso.daegu.go.kr
http://smart.daegu.go.kr

두드리스란? 대구시의 모든 민원과 제안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완영 의원, “법원, 양형기준 10건 중 1건 지키지 않아”

국민 법 감정 걸 맞는 양형기준 개선책 촉구



법원이 판사의 자의적인 형량 선고에 대한 문제 예방을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이 일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양형기준이 여전히 10건 중 1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 법 감정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38개 범죄군) 사건 중 9.7%인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국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9%로 가장 높은 미준수율을 보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이 13.8%로 뒤를 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의 미준수율인 6%와 비교할 때 8% 이상 차이가 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식품·보건범죄(41.2%), 증권·금융범죄(31.2%)의 미준수율은 30%를 초과했으며, 미준수율이 20%를 넘어선 범죄 유형은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양형기준이 10% 가량은 지켜지지 않고 범죄군에 따라서는 30%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국민 법 감정에 양형기준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깊게 개입하면서 부적절한 처사가 문제 되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쇄신을 통해 양형위가 독립적으로 양형제도 및 양형기준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원규 기자

김정재 의원 “총각무 3개 중 1개 농약 과다검출”

지난해 유통 38.6%가 허용 기준치 초과... 대책 시급



총각무의 38.6%에서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농약과 다 검출에 의한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부적합률이 8.4%였으나 2015년에 21.6%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26.5%로 상승한 이후 2017년에는 38.6%에까지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의 구명난 안전성검사 시스템 때문에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할 경우 샘플 수거에서 검사결과 도출까

지 최대 7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농약이 검출되어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된다.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도매 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진(Diazinon)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05ppm)의 128배인 6.43ppm이 검출되었지만 해당 총각무들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단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도매 시장의 총각무에서는 살균제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1ppm)의 151배인 15.1ppm이 검출되었으나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됐다.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서 특정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생산지를 추적 조치하여 농약 농산물을 회수·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중 42.7%인 149건이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할 수 없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번 살충제 농산물 유통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구명난 안전검사 시스템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 기자

조원진 의원, “정부 산하기관, 문제인 캠퍼더 인사”

공무원연금공단 6명 등 21명 전문·공정성 인사로 교체해야



행정안전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중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 민주당) 출신 인사’가 무려 2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이 10일 행정안전부 산하 7개 기관 임원을 조사한 결과, 2017년 문제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 21명이 ‘캠코더’인사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박종환 총재는 문제인의 경희대 법대 동기로 지난 9월 20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했으며, 좌파 민주화운동의

대부라는 정성현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20대 총선에 인천 연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으로 임명된 문용식씨는 문제인후보 선대위 가짜뉴스대책단장으로 ‘패륜’발언으로 사퇴한 당사자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부이사장 이종각씨를 비롯하여 남규선, 김재승, 정도상, 이태호, 전민용, 정완숙 이사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거나 문제인 후보를 지지했거나 참여연대 출신이거나 하는 일명 ‘캠코더’ 출신이었다.

특히 제주도로 간 공무원연금공단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정남준씨가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강창일 의원 보좌관 출신 김천우 상임감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오정훈 상임이사,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행정관 출신 이지현 상임이사 등이 포진했다.

조원진 의원은 “문제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캠코더 인사로 시작해 캠코더 인사로 끝을 맺을 정도로 자신의 코드에 맞는 편향된 인사를 산하기관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원규 기자

‘대북·부동산·가짜뉴스’ 놓고 여야, 국감 첫날 곳곳서 충돌

법사위, 野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 요구에 파행 외교부, 北 비핵화 대응성 정상외교 부재 공방 정부위, 가짜뉴스 강경대응 지시에 野 일제 반발 국토교통회, 文정부 부동산대책 실효성 공방



국회가 10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사실상 첫 국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주장하는 야당과 '과장과 왜곡'이라고 맞서는 여당이 곳곳서 충돌했다. 일부 상임위는 파행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된 첫날 여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선언, 공무원 증원, 기업 해외 투자 증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면서 1시간가량 파행했다. 여당은 관례에 따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부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거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를 감행했다.

다만 여야는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방탄법원'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중인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제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범여권의 적폐청산 공세가 이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이권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승태 국제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기재위에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공개 논란을 두고도 대치했다. 한국당은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고 민주당은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이라고 맞섰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와 북한 비핵화 및 정상외교 등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중전선언을 북한의 핵무기 명단 제출이 아닌 영변핵시설 폐기와 연계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대응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고등훈련기사업 수주 실패 등을 들어 “외교부나 정상이 큰 프로젝트 수주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수혁 의원이 강 장관에게 “(북한이 핵무기 목록 제출은 안 해도 된다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다. 왜곡이었다”는 말을 끌어내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었다. 강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야당의 반발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국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전쟁 가능성 사리사단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추켜세운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GP(감시초소) 철수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GP는 1차 경제, GOP(일반전초)는 완전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상이 없다는 걸 합동참모본부 업무보고 때 보완대책 등을 다 포함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계 캠프(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증인으로 불려 나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병역 면제 혜택을 위해 오지환 등 일부 선수를 발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선 감독은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청탁,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대표 선수 선발 과정은 공평했다. 코칭스태프와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 통계, 출신 기록, 포지션, 체력 등 여러 지표를 살폈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인 제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정부위원회는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지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 정의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한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여당 소속인 제윤경 의원도 “허위·조작의 기준은 정부가 듣기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현 정부 들어 20단계 상승했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강력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하여 36.6%로 까지 감소했다.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것이다. 캠프자를 비롯,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18.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 18.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한편 타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캠프자의 비율이 높았고,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캠프자 또한 연평균 48.7%, 18.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

그런 성격의 가짜뉴스(대응을) 한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뺨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회담을 하는데 눈치도 없는 퓨마가 출몰해서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했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다”고 했지만 홍 실장은 부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회장,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인터넷 뉴스 편집 중립성과 가짜뉴스 근절 등을 캐물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책임투자담당자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문제인 대통령 유럽 순방 수행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범수 카카오 회장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할 긴급사안인 속보만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 뉴스 편집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유투브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회원사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그리스 등을 예로 들면서 공무원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행안부가 추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자부 국감에서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강화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젠 사장(탈출)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야당은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카허 카젠 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이울러 야당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와 유턴(북귀) 기업 저조 등을 정부의 규제 강화와 반(反)기업 정서 조장에 따른 ‘한국 엑소더스(탈출)’로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윤모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시장진출, 기술력, 원료 확보 등에 따라 다양화 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본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고 힐난했다. 반면 여당은 급등 원인을 투기 수요와 박근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및 저금리 정책에 돌리면서 현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았다고 옹호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부 국감에서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미비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에서 문제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 등에 대한 환경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오후 1시 국감 일정을 25일로 연기했다.

장원규 기자

김상훈 의원 “투기 잡겠다더니...갭투자, 임대용 매수 더 늘어”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21%→56%, 임대용 구매 42%→63%

지난 1년여 동안 국토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음에도,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 중,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율이 17.10월 21.2%에서 18.9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어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 또한 31.4%

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하여 36.6%로 까지 감소했다.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것이다.

갭투자를 비롯,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18.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 18.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한편 타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고,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캠프자 또한 연평균 48.7%, 18.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



이 갭투자(72.0%)였다. 김상훈 의원은 “1년 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 기자



도박에 대한 O·X 퀴즈 정선건강의 날인 1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2018 대구 정선건강 축제에서 시민들이 도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하고 있다.

포항시, 시민청원제 도입

30일내 1000명 동의 공식답변 시책, 사회적이슈, 집단민원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불편사항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

사항 등이며 허위사실과 욕설, 비속어 사용은 임의 삭제할 예정이다. 청원처리는 30일 이내, 1000명 이상 동의 시 관련부서 검토 후 기준 수 이상은 10일 이내 시의 입장을 공식답변하고 기준수 이하는 미답변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국민청원제를 모티브로 하는 '시민청원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청원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민선7기 주요공약 사업 중 하나로 주요시책이나 사회적이슈, 집단민원 등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직접소통 플랫폼 확대를 통한 맞춤형 쌍방향 공감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시는 시청 누리집 열린시장실 내 '시민청원제'코너를 개설해 운영한다. 누리집 회원 또는 기존 SNS 개인 계정을 통한 간편로그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만14세 이상 포항시민 누구나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원대상 내용은 시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선 7기 취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제와 비슷한 시민청원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당초 시민 2000명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포항 인구수에 비해 청원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따라 1000명으로 줄였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경우 1000명, 경기 성남시는 5000명, 전남도는 500명을 청원 처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민선7기를 맞아 '행정소비자 주권시대' 개막이라는 슬로건처럼 시민중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청원제를 시행한다"며 "53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포항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불난 주택서 아버지 구하려던 아들도 참변

안동시 길안면 주택 화재에 80대 아버지 구하려 불길로 뛰어들었다 부자 함께 숨져 5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를 구하려 불길로 뛰어들었다 부자(父子)가 함께 숨졌다. 10일 오전 3시 55분쯤 안동시 길안면의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50여㎡)과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집안에 있던 C씨(80·여)가 처음 발견한 뒤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C씨는 때마침 집에 들린 아들 B씨(54)에게 아버지 A씨(80)가 불이 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차량의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부자(父子) 모두 나오지 못했다. 안동시내 사는 B씨는 이날 아버지와 함께 숨이를 따라 가기 위해 새벽에 집에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12대와 소방대원 30명을 투입해 진화한 뒤 방 안에서 시신 1구를, 이날 오전 8시쯤 무너진 건물터미에서 다른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씨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용구 기자

한수원노조, 김규호 비상임이사 배임혐의 추가 고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한 한수원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 차원

국단위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의 결정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 차원이다.

에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직후, 원전건설 이해도 증진을 명분으로 UAE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동참했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환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1일 오후 김규호(경주대 교수) 비상임이사를 배임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인 한수원 노조의 고소는 전

한수원 노조는 "회사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라며 "국가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

과 감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A군 아버지로부터 6개월간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아들이 이미 숨진 사실을 모르던 A군 아버지는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안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월 보육료 27만원 노리고 동료 아들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고법,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과 감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A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A군 행적을 추적하던 중 안씨가 A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체포했다. 안씨를 추궁한 끝에 구미시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시신을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백골 상태의 A군 시신을 찾아냈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을 진 데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연체까지 겹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현우 기자

월 보육비 27만원을 노리고 직장 동료의 4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매장한 30대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A군 아버지로부터 6개월간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아들이 이미 숨진 사실을 모르던 A군 아버지는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안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을 진 데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연체까지 겹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현우 기자

포항 형산강 멸종위기 물수리 보려고 '복새통'

물수리가 나타나는 9월 중순 11월 초 생태사진작가 몰려

물수리가 나타나는 이 시기에 형산강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초망원 렌즈와 카메라를 둘러싼 전국의 생태사진작가 수백명이 몰려든다.

사진작가들의 카메라 장비도 시선을 끈다. 형산강으로 산책 나온 시민들은 1개 가격이 웬만한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는 망원렌즈와 초망 12~20장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의 성능에 놀라기 일쑤다. 생태작가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 장비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발길이 늘어가고 있다. 강동진 기자

가을빛이 완연한 포항 형산강에 10월 들어 수천만원짜리 고가의 카메라를 맨 사진작가들이 몰려들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물수리의 사냥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형산강을 찾는 물수리는 2000~3000km 떨어진 러시아 등지에서 날아오는 겨울 철새다. 물수리는 9월 중순~11월 초 형산강 일대에 잠시 머무 후 고향인 러시아 등지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형산강으로 날아든 물수리는 5마리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4마리가 목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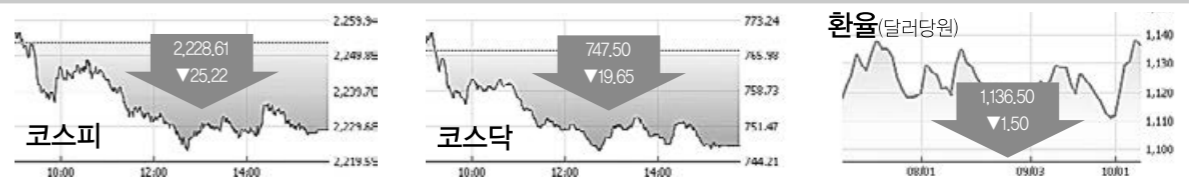
NO 층간소음

YES 층간소통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층간소통"으로 해결하세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코스피, 연중 최저점 위협

코스피, 외국인 매도 확대로 2220선 후퇴
코스닥도 2%대 급락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확대로 2220선으로 후퇴하며 연중 최저점을 위협하고 있다. 코스닥도 2%대 급락세를 보이며 주가가 750선까지 하락했다. 10일 오후 1시25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253.83) 대비 25.88포인트(1.15%) 내린 2227.9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253.83) 대비 2.20포인트(0.10%) 오른 2256.03에 개장했지만 오전 9시 12분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이후 지수는 점차 낙폭을 늘리며 장중 2222.95까지 저점을 낮췄다. 이는 지난 8월16일 기록했던 장중 연저점(2218.09)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143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00억 원어치, 10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6.32%)과 의료정밀(-5.82%), 건설업(-5.74%), 기계(-5.22%) 등이 하락했다. 반면 통신업(1.60%)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SK하이닉스(-1.26%)와 셀트리온(-0.17%), 삼성바이오로직스(-2.85%), 현대차(-0.82%), POSCO(-0.18%),

KB금융(-0.89%) 등이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44%)와 SK텔레콤(1.97%)만이 시총 상위주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67.15) 대비 15.88포인트(2.07%) 내린 751.27을 기록 중이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16포인트(0.15%) 오른 768.31에 개장한 후 곧장 하락 전환해 2% 이상 급락하며 장중 746.63까지 주저앉았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홀로 24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20억 원어치, 30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0.58%)와 포스코엔텍(-1.35%), 나노스(-1.88%), 에이치엘비(-1.77%), 메디톡스(-1.97%), 스튜디오드래곤(-2.43%), 펠어비스(-1.96%) 등이 하락하고 있다. 신라젠(2.92%)과 CJ ENM(1.83%), 바이로메드(0.64%)만이 상승하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나, 국내 최초 자체 개발 수제 맥주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브랜드 반영된 프리미엄 수제 맥주 'ASIANA' 라운지 이용 고객 대상 서비스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브랜드 수제 맥주를 제작해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에 새롭게 단장한 아시아나항공 퍼스트,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가 반영된 프리미엄 수제 맥주 'ASIANA'를 고객들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과 수제 맥주 제조업체인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개발된 수제 맥주 'ASIANA'는 유명 일러스트 작가인 '키미엔일이'가 라벨 일러스트에 참여해 '맥주와 함께 힐링하는 여행의 설레임'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알코올 도수는 4.7%로 여행 출발 전 공항 라운지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수 있으며, 풍부한 과일향과 깊은 풍미로 기존 라거 맥주와 차별화된 신선한 맛이 특징이다. 퍼스트 라운지에서는 'ASIANA' 병맥주, 비즈니스 라운지에는 'ASIANA' 생맥주가 기존 서비스 품목과 함께 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라운지 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의 충북 음성 양조장에서 별도 구매도 가능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회원과 탑승객들은 지난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의 충북 음성 양조장에서 진행되는 '아시아나 클래식 투어' 프로그램의 티켓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과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성용 기자

KDI “韓경제, 투자 감소에 고용 부진…내수흐름 정체”

투자과 고용, 소비 막혀 '삼중고'



최근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내수경기가 얼어붙었다는 국제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감소와 고용부진으로 인해 내수 흐름이 정체돼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와 고용, 소비가 막혀 우리경제가 삼중고에 빠졌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투자부문은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월 대비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기성액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KDI는 “설비투자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송장비가 증가했으나 비중이 큰 기계류의 감소세가 지속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건설투자는 건설기성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수주도 큰폭으로 축소돼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소비도 상황도 좋지 않다. 8월 소매판매는

전월과 보험세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KDI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됐으나, 서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 개선 흐름은 불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취업 시장은 여전히 겨울이다.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쳤고 8월에는 3000명까지 떨어졌다. KDI는 “취업자 증가폭이 미미한 가운데,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출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위안이다. KDI는 “조업일수 등 일시적 요인을 감안할 때 수출은 반도체를 위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다”며 “9월 수출이 추석 명절연휴 이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포스코, '온라인 경매'로 사랑나눔 실천

추석 명절 선물반송센터 접수물품 온라인 경매 추진, 포스코패밀리 1%나눔재단에 수익금 전액 기탁

추석 명절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한 포스코는 최근 접수된 물품을 대상으로 사내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번 '나눔의 실천 온라인 경매'의 판매물품은 주류, 식품, 생활용품 등을 비롯한 28건의 물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포스코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 광양, 서울 지역에 운

영한 선물반송센터에 접수된 물품 중 발송인이 불명확하거나 사외복지시설 기증이 곤란한 상품들이다. 경매 대상 물품의 시작가는 시장 최저 가격의 50% 수준이고 최고가를 입찰한 임직원이 물품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나눔의 실천 온라인 경매를 지속해왔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34회의 경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약 1억 4000여만원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돼 오고 있다. 김치호 기자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03년 윤리규범을 선포하고 2004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에 이해관계자와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 '윤리적 명절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선물반송센터 운영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치호 기자

DGB금융그룹 'New S.T.A.R.T DGB' 이벤트

전 계열사 시너지 효과로 새 출발 100년 기업 향해 계열사별 상품 이벤트 실시

DGB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New S.T.A.R.T DGB'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룹 통합, 디지털, 시너지, 글로벌, 소통'의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강조해 시너지 창출을 다짐한 바, 이번 이벤트는 새롭게 출발해 100년 그룹을 향하는 의미로 START의 머릿글자를 따 각 계열사 별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DGB대구는 Stamp이벤트를 실시해 예금과 신용카드, 펀드, 적금, 방카의 다섯 가지 상품 중 4개 이상의 완료 스탬프를 찍는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권을 증정한다. 또 5개 이상의 완료 스탬프를 찍는 고객들에게 추천을 통해 삼성 UHD TV55인치, LG건조기, LG스타일러 등 총 2015명에게 푸짐한 상품을 준다. 올해 10월 창립 51주년을 맞는 DGB대구는 행은 창립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로 삼성라이온즈와 함께 대구 시민들을 위해 오는 13일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마지막 경기 당일 관객 전원에게 응원용 수건인 2018최강삼성 타월을 증정하며 경기 시작 전 광장에서는 DGB 대구은행이 페이스페인팅 및 고객 참여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DGB유패이가 실시하는 Thank you 이벤트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벤트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협의해 이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DGB생명은 App으로 만나는 DGB 이벤트로 DGB생명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고객장구 주요업무(보험금 청구, 개인정보 업데이트, 마케팅 수신동의, 약관대출·상환 등의 업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LG트롬 건조기, 다이슨청소기 등 총 107명에게 경품을 추첨 증정한다. DGB자산운용의 Real 명품펀드 가입 이벤트는 DGB명품 KRX300 인덱스 펀드 외 7개 공모펀드(개인·법인 MMF제외)에 3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 중 이벤트 종료 시까지 최고 잔고를 유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공한다. DGB캐피탈의 The The 신(新)나는 이벤트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9 등 총 111명에게 주유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조여은 기자

지식산업의 집약지
경산지식산업지구,
DGFEZ의 미래를
환히 밝힙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Daegu-Gyeongbuk Free Economic Zone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및
첨단 메디컬 신소재 산업의 허브
경산지식산업지구
Gyeongsan Knowledge Industry District
www.dgfez.go.kr | 투자문의 053)550-1951

“경북도가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회”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10일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경북도가 10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외교부, 유관기관 및 단체,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 추진사항과 남은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점검하고, 경북지사와 포항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과 단체, 각계 전문가, 시민 등 32명을 포럼 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으로 한국과 러시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다음달 7-9일 3일간 포항시 일원에서 열린다.

‘함께하는 한-러,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경북도가 주최하고 포항시가 주관하며 외교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러시아 극동개발

부가 후원하며 경북지사와 러시아 연해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는다.

제1차 포럼에는 한국 17개 시지사와 러시아 극동지역 9개 주지사 등 양국 26개 지방정부 대표, 기업인, 전문가가 참석하며 양국 지방정부 간 물류, 철도, 관광 등 교류확대 방안 등에 논의한다.

주요행사는 한-러 26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정부 서밋’과 국내외 주요인사,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여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식’, 한-러 간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실질적인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비즈니스·전문가·청년 포럼’ 등이 있다.

한-러 지방 간 양자회담, 무역상담회, 전자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경북도는 이 포럼으로 지난해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안한 9-브릿지 협력사업인 철도, 전력, 가스, 조선, 항만, 북극항로, 일자리, 농업, 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러시아 극동연방 9개 연방주체는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10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외교부, 유관기관 및 단체,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추진상황 보고회 후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사할린주, 캅차카주, 사하공화국, 마가단주, 추쿠트자치주, 유대인자치주이다.

이들 지역 인구는 646만명으로 러시아 전체 1억4200만명 가운데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면적은 615만㎢로 러시아 전체 108만㎢의 36%(한반도의 28배)에 이르는 광대한 지

역으로 목재와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러 간 지방 상생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자 경북도가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도

약하는 기회”라며 “지역에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행사를 민관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개최해 동해안권 물류, 항만, 관광, 철도 활성화는 물론 경북도가 정부 신북방정책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경북도-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5개 분야 9개 과제 협약체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단이 10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 후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경북도는 10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이철우 지사와 지역 10개 상공회의소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철우 지사가 취임 이후 지역 상공인의 대표기구인 10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지방소멸, 청년 실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일자

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등 5개 분야 9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도는 KTX 서울역에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를 운영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당신이 경북도입니다’를 테마로 도청에 경북도 기업관을 설치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상공회의소는 도가 시행하는 ‘1차-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과 ‘지역주도형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수요 맞춤형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도가 추진하는 ‘대구경북 혁신인재 양성프로젝트’와 ‘경북 인공지능 거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지역 상공회의회 회원 기업의 CEO와 재직인력 등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도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포상을 확대하고, 기업 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경북도와 상공회의소가 각종 규제와 법령 개정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경북에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등지에서 10개 상공회의소가 3864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한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태풍 콩레이로 많은 피해가 난 동해안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이 지사가 취임 후 기업 일선 현장을 다니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 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지역 상의가 명실공히 지역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연찬회

경북에 새바람 불러일으키는데 새마을운동 앞장선다 결의 다져

경북도는 10일부터 이틀간 The-K호텔경주에서 도 및 시군 새마을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신재학 경북도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새마을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생명·평화·공경 운동 활성화 방안’추진을 위해 5개 분야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11일 열리는 시군 새마을회별 우수사례 발표시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원사업(김천시새마을회)’, ‘스스로 함께 일하고 학습하는 마을공동체(울진군새마을회)’,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청도군새마을회)’, ‘결혼이주여성 친정집 고쳐주기(포항시새마을회)’, ‘Y-SMU포럼 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상주시새마을회)’ 등 5개 시군 새마을회가 사업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세부 추진내용에 대한 정보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경북도새마을회는 17만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저출생문제 극복, 환경살리기운동 등을 비롯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문화 확산과 선진 도민 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연찬회를 주관한 경북도새마을회(회장 신재학)는 경북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종주도라는 자긍심으로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경북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새마을운동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성용 기자

“그네, 시소, 미끄럼틀은 그만”... 창의적 놀이터 조성

경북도, 부부건축사들과 간담회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3종 위주로 설치되고 있는 놀이터 대신 안전교육이 되면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발달을 돕는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경북에서 시작됐다.

경북도는 10일 대구청사 회의실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부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등 주변 환경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이용자인 어린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으로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3종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어린이의 창의적인 사고 발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이다. 이에 경북도는 어린이가 즐겁게 뛰어놀면서 스스로 안전교육을 체득해 위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12명의 부부 건축사들이 놀이시설 등 현장에서 경험한 생동감 넘치는 의견들을 자문받아 어린이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안전과 재미를 모두 충족하는 맞춤형 경북 어린이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부 건축사들은 아이들을 직접 키운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에서 주거공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그룹으로, 누구보다 어린이의



특성을 잘 알고 현장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자문이 가능한 현장 전문가들이다.

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경북형 어린이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청년취업 cheer up
경북청년들이 앞장설 준비하라!

SUCCESS → cheer up! cheer up! cheer up!

START

취업성공

청년들의 더 큰 행복

경상북도가 함께 고민하고 뛰겠습니다!

청년일자리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로 ~ 1544-8819

대구 유·초·특(유·초)교사 임용시험 평균 4.95:1

초등학교 1.95:1 경쟁률 보이며
전년도 2.58대 1 보다 다소 낮아
유치원 8.73대 1로 경쟁률 상승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평균 4.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평균 4.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분야별로 초등교사의 경우 60명(장애 5명 포함) 117명이 지원해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년도(2.58대 1) 보다 다소 낮아졌다. 초등교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지원자수는 증가했으나 선발예정 인원이 늘어나면서

40명→60명)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유치원 교사는 37명(장애 3명 포함) 모집에 323명이 지원해 8.73대 1 △특수학교(유치원)는 교사 5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해 8.0대 1 △특수학교(초등) 교사는 18명(장애 1명 포함) 모집에 114명이 지원해 6.33

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해 경쟁률이 상승했다.

이번 초등(유, 초,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교원 임용시험은 11월 10일 1차 시험이 실시되며 12월 11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

차 시험은 2019년 1월 9일~11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월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 결과 및 세부적인 시험일정과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 / 알림마당 / 시험·채용정보란에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박지수 기자

경북 초등교사 내년도 임용시험 평균 1.66 대 1

455명 선발 756명 지원
11월 10일 1차 시험 실시

‘2019학년도 경상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55명 선발에 총 756명이 지원해 평균 1.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1.73대 1)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유치원(일반)

은 29명 선발에 277명이 지원해 9.55 대 1 △초등(일반)은 385명 선발에 387명이 지원해 1.01 대 1 △초등(장애)는 27명 선발에 3명이 지원해 0.11 대 1 △특수(일반) 11명 선발에 87명이 지원해 7.91 대 1 △특수(장애)는 1명 선발에 2명이 지원해 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57.9%로 지난해(54.4%)에 비해 증가했으며 분야별로 유치원이 84.1%(233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학교 82.0%(73명), 초등학교 33.8%(132명) 순

으로 나타났다. 초등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은 51.0%(199명)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으며 정규 교원경력자도 24명(6.2%)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한편, 초등 지원자 중 대구교대 출신 비율은 54.9%(214명)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유·초등 신규 교사 임용 1차 시험은 오는 11월 10일에 실시하고, 시험 장소는 11월 2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김용구 기자



성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소집단 학부모 교육

11월 7일까지 매주 1회 5주간
감정 코칭·대화 치료 등 진행
가족관계·부모역할 역량 강화

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단회성 교육이 아닌 5주간 심도있는 교육을 통해 평소 자녀양육에 대한 의문점들을 질의응답하고 부모 자녀 상호간 가족관계 향상 및 부모역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성주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5명을 대상으로 10월 11일~11월 7일까지 매주 1회 총 5주간 Wee센터 집단상담실에서 소집단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아이를 살리는 부모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자녀교육스타일, 감정코칭, 대화치료 등의 교육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가

배인호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가진 말의 힘은 아이들의 행복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소집단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와 현명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노균 기자

계명문화대, ‘대한민국 청미약선요리대회’ 전원 수상



투투탱고 박소은·이동영 학생 대상
금상 8개·은상 5개 등 17개 상 수상

계명문화대학교가 지난 6일 부산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청미약선요리대회’에 참가해 대상(부산광역시장상) 1개, 금상 8개, 은상 5개, 동상 3개 등 17개의 상과 24명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투투탱고(2인 1조) 부문에 출전한 식품영양 조리학부 박소은(1학년, 19세), 이동영(1학년, 21세) 학생 조는 허브크러스트를 곁들인 닭고기 맛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투투탱고 부문에 출전한 또 다른 팀인 이인석, 정세희 조 등 3팀은 각각 금상을 수상, 그 외에 팀들도 은상 3개와 동상 2개를 추가해 투투탱고 부문에서 상을 휩쓸었다.

또한, 버터케이크부문에 출전한 남해림 학생

은 ‘가을에 스며든 책’이라는 주제로 금상을 수상, 그 외 학생들도 금상 4개, 은상 2개, 동상 1개를 추가해 이번 대회에서만 대상을 포함해 17개의 상을 수상했다.

장상준 식품영양조리학부장은 “참가하는 대회마다 전원수상과 대상, 금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현장형 매뉴게발을 통한 이론과 현장중심형에 적합하도록 주력한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온라인 유치원 추첨 합격 3일 내 등록해야”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
취약계층 자녀 우선 모집

내년도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입학시킬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오는 11월 1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과 선발, 등록 등 입학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는 유치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등록자들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3개 유치원 희망순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첨 시 3일 이내로 등록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우선모집은 11월 1일~6일까지 이뤄진다.

추첨 결과는 같은 달 12일 발표된다. 이어 같은 달 13-15일 합격자 유치원 등록 기간이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 취소된다.

지역 여건과 유치원장 재량에 따라 다자녀·다문화가정 등도 우선모집에 해당된다.

일반모집은 11월 21일~26일까지 이뤄진다. 추첨결과는 12월 4일 발표 예정이다.

추가모집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별로 진행된다.

농·어촌이나 조손·결손가정 등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와 보호자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도 있다.

김용구 기자

예술나무운동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적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법국민 문화예술 후원입니다.

ARS: 060-600-0006
예술나무: www.artistree.or.kr

‘예술’은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나무’입니다
문화예술 후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ARTISTREE

17집 예술나무 문화예술 후원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공헌까지 함께 합니다.

1인 예술나무 문화예술 후원 당신이 키운 예술나무부터 시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 위한 첫 발

포항시, 추진상황 보고회 추진위 출범 준비 본격화 공동번영 화합의 장 조성

포항시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포항시 일원에서 열린 예정인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 및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0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경북지사와 포항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각 기관·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3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한편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추진상황 보고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두 나라간 상생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자 경북도가 북방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포항이 글로벌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지진과 철강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포럼 출범을 합의하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오는 11월 포항에서 열리는 첫 포럼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러시아 측은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연방관구 소속의 9개 주 단위 지자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두 나라 지방간의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상호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첫 시장 취임부터 북방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등과의 발 빠른 교류를 펼쳐왔던 이강덕 시장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포항시가 '환동해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동진 기자

천년고도 경주 명품 축제 '신라문화제' 폐막

월정교·침성대 동부사적지 일원서 7일간의 신라이야기 대향연 펼쳐 35만명 인파 북적 옛 명성 재확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 '제46회 신라문화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경주시는 지난 9일 월정교 남측광장에서 침성대 축조 재현 준공과 함께 시민과 관람객이 모두 함께 화합하는 강강술래, 탐돌이, 미디어파사드, 불꽃놀이 등 폐막행사를 갖고 올해 신라문화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새롭게 복원된 월정교를 중심으로 핑크몰리를 비롯한 가을 꽃 만발한 침성대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신라문화제는 태풍으로 인해 중단된 2일 제외하고도, 5일간 국내외 35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새롭게 변모한 신라이야기 축제에 대한 옛 명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폐막행사에 앞서는 침성대 축조에 참여한 선덕여왕의 행차 행렬을 재현한 거리퍼레이드와 침성대에 사용된 거석을 전통기법으로 운반하는 거석 나르기 읍면동 대항 결승전이 펼쳐졌으며 이어 신라문화의 열과 혼을 느낄 수 있는 '서벌 향연의 밤' 공연이 열려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축제 마바지 흥을

한층 돋궜다.

행사 기간 동안 석공 명장들이 신라시대 전통축조방식으로 재현한 침성대를 중심으로 마련된 폐막무대에서는 시민의 화합과 새로운 미래 경주의 도약을 기원하는 탐돌이와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강강술래에 이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환상적인 미디어 파사드는 이번 신라문화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이아이트로 관람객 모두의 탄성과 감동을 자아냈다.

한편 경주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치매된 신라문화제의 옛 명성과 위상을 찾기 위해, 이번 행사 슬로건을 '새물다, 신나다, 멋지다' 3다 축제로 정하고,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전국 공모 콘텐츠를 포함해 독창적이고 참신한 10개 분야 44개의 단위행사로 진행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명실상부한 전국 우수 축제로 재도약하기 위해 과거 행사답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다양한 신라이야기 콘텐츠와 누구나 참여하고 즐겁게 체험하는 다양한 아이টে으로 관람객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대표 행사인 침성대 축조 재현, 거석 운반 대항전, 주령구 컬리존, 선덕여왕 행차 퍼레이드, 침성대 별 잔치, 화랑국궁 체험, 월정교 부교 건너기, 문천 소원등 띄우기, 육부촌 거짓거리 먹거리 장터와 각종 체험부스는 가을 시즌을 맞아 천년고도를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충분했다.

주낙영 시장은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준비했던 여러 프로그램이 취소 변경돼 아쉬움도 있었지만, 축제에 적극 참여해 준 시민들과 문화예술인, 기관자생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신라문화제는 경주시민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올해 미흡한 점을 다시 보완하고 개선해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위덕대서 인생 소통 특강

31년간 공직생활 경험담 전하며 인생과 진로 기로에 용기 북돋아



주낙영 경주시장이 10일 위덕대학교 갈마관에서 대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높이 비상하라'는 주제의 소통 특강을 가졌다.

이 날 주 시장은 인생과 진로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젊은 대학생에게 31년의 공직생활 경험담과 함께 꿈과 도전, 열정, 신뢰, 소통, 선택, 독립 등 핵심 키워드를 통해 진솔한 인생 철학을 전달했다.

먼저 주 시장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는 일본 언어 '코이'를 예를 들며 "생각

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좌우하므로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고 꿈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실패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일"이라며 "실패는 맷집을 키우는 과정이자 노후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취입과 장래를 준비함에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 시장은 만화가 이현세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의 사례를 언급하며 "꿈이 목표가 되고, 계획으로 좀 더 구체화 시키려는 부단한 노력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열정을 갖고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공자 말씀과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 격언을 통해 신뢰를 강조했다며 토론과 교감을 통한 소통의 노력과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한 결정과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끝으로 주 시장은 "대학 생활은 장래의 나를 실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서는 기간이기도 하다"며 "평생해도 즐거울 것 같은 일을 찾아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할 힘을 미리미리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시-경북선관위,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

주민참여 온라인 정책투표 P-voting 추진 업무협약 11일부터 시민 목소리 청취

포항시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의 주민참여 온라인 정책투표, 일명 P-voting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P-voting'은 지난 7월 경북선관위 협업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시책사업으로 공모, 지난 8월 전국최초 기관협업 주민참여 플랫폼에 선정됐으며 10일 경북선관위와 업무 추진 협약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강덕 시장은 "요즘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범위한 분야의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선관위와 우리시 P-voting을 통한 시민 공감·소통이 활성화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소통행정 모범사례로 확산돼, 직접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 협업사업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선관위 김중대 사무처장도 "사회 전반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공적 영역 의사결정수단으로 투표가 강조되

고 있다"며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환경이 확산돼 온라인 정책투표야말로 가장 쉽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 온라인 정책투표(P-voting)는 우선, 오는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포항불빛축제 개최시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민선7기 중점 사업분야 등 5개 안건에 대해 실시한다.

포항시민은 누구든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포항시 누리집에 접속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거리에 붙은 포스터나 홍보 리플릿의 QR코드를 스캔해 투표 가능하다. 또한, 관내

29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3주간 정책투표소가 설치돼 방문객들도 위촉된 투표안내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대규모 행사장에도 '찾아가는 현장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관위와 지속적인 협업은 물론 내년도에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앱을 활용, P-voting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시정 운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고 전국의 대표적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진 기자



포항·울산·경주 해오름동맹 공동협력사업 박차

동부남부권 상생협의회 첫 정기회 5개 신규사업 3대 분야 21개 추진

포항과 울산, 경주시가 '해오름동맹' 지진방재 및 대응 공동협력단'을 구성해 상호 협력·지원 및 관련기관 유치 공동대응 등 3개 도시의 방재역량 강화하는 한편, 도시의 향상을 활용한 '해오름동맹 자동차부품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 추진으로 인접도시간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은 도모하기로 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포항·울산·경주 3개 도시 행정협의체인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가 첫 정기회를 갖고, 2019년 공동협력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은 10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공동협력력을 위한 신규사업 5건과 계속사업 16건을 포함해 3대 분야 총 21개 사업을 확정하고 세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5개 신규 사업으로 △지진방재 및 대응 공동협력단 운영 △해오름동맹 자동차부

품 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 △해오름동맹 벤처기업 혁신포럼 개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협의체 구성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진방재 및 대응 공동협력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 세 도시는 올해 중으로 '공동협력단' 발대식을 갖고, 지진방재 및 공동대응 세부실천과제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광역적인 대비·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해오름동맹 자동차부품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활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유명 전시회 해오름공동관 운영과 참가기업의 공동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 영일만항과 울



산항을 활용한 인접도시간 자동차부품기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11월 포항에서 열리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경주, 울산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해오름동맹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전기충전소 공동보급 사업과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제 개최 등을 비롯한 20개 사업 중 16개 계속사업의 추진경과와 성과가 보고됐다. 추가적으로 '동해남부권 상생발전 전략 연구 용역' 및 '울산·경북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용역' 결과물 등에서 나온 사업들에 대한 연속성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오름동맹의 공동협력추진사업을 통해 3개 도시 시민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협력 사업들의 발굴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말했다.

한편, 회의 이후 3개 도시 시장들은 지난 5월 개방된 포항 도시의 아름다운 도시 숲인 '폐철도 부지 도시숲(효자교회~이동교차로 구간)'을 함께 걸으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동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치호 기자

경주시 '신라 왕들의 축제' 19일 개막

19일-21일까지 3일간 침성대 동부사적지 일원

올 가을, 경주에 오면 신라 왕이 된다. 신라 왕들의 정원으로 불렸던 경주 동부사적지와 침성대 일원에서 신라 천년, 56왕의 위대한 서사를 재조명하는 '2018 신라 왕들의

축제'가 오는 19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는 신라 왕들의 축제는 국내 유일의 신라 56왕을 스토리텔링한 테마 축제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신라저자 거리를 연출한 공간에서 설화 속의 신라 56왕과 왕릉·유적지에 얽힌 이야기 등을 다채로운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주행사장 무대인 침성대 일원(내물왕릉 앞)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바다를 건너온 용감하고 지혜로운 탈해왕을 테마로한 주제공연 '토함산의 신! 천년 신라의 터를 잡은 임금'이 첨단장비를 이용한 '불과 빛, 소리와 영상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쇼'와 조화를 이뤄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공연 후 이어지는 '왕의 연회'에서는 화려무 공연단, 대면무도회, 팝페라, 가람예술단, 판타지페밀리 등의 축하 공연이 진행된다.

윤용찬 기자

울진 영덕 청송 영양 울릉

청송아카데미 강연 개최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초청



청송군은 11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문화심리학 박사인 김정운 교수를 초청해 '10월 명품 청송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김정운 교수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여러가지 문제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가슴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등 다수의 심리학 베스트셀러가 있다.

이번 청송 강연에서는 소통의 문화심리학적 기초가 되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주제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한 여섯 가지 노하우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삶'임을 알려 줌과 동시에,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지를 행복한 마음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울진군, 무궁화동산 조성

울진군은 전 국민 나라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울진읍 울진읍 고성리 121번지 일원에 처음으로 1ha의 맞춤형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와 공원복지사업에서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1ha의 균유지(공한지)에 지난달부터 부지를 정비해 10월에 무궁화나무 3000주를 식재, 무궁화동산을 조성 완료했다.

무궁화동산에는 총흔담과 6.25 참전 유공자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어 국경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소로 활용해 나라사랑을 직접 체험할 좋은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송군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국 최초 준공

청송LPG공급관리소서 준공 기념식 오늘 개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시작된 후 청송에서 전국 최초로 '청송군 LPG배관망'이 구축돼, 11일 청송LPG공급관리소서에서 준공 기념식을 가진다.

이로써 청송읍 소재지 지역주민들은 본격적으로 LPG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송군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전국 13개 지역 중 처음으로 2016년도 시범사업에 청송군이 선정돼 총 140억원(국비50%, 도비12%, 군비28%, 자부담10%)의 사업비를 확보하

고, 효율적인 배관망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2016년 4월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난해 6월 착공, 1년 3개월 만에 준공을 맞게 됐다.

특히 청송군은 세대별로 20만원을 지원해 대도시 도시가스공급지역의 수요자 부담금(200~400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인 80~100만원의 자부담금을 확정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취약계층은 LPG업체에서 마련한 에너지희망충전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50%의 자부담을 지원 받도록 했다.

또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에 대한 가스설치비는 전액 지원해 가스공급을 마무리했다.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인 청송LPG공급관리소에는 저장탱크 30톤 2기와 기계실, 보일러실, 전

기실, 사무실이 배치돼 있으며 주공급관 및 공급관(PE배관 63mm~335mm) 15.1km의 배관망을 통해 청송읍 소재지 1215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한다.

청송읍 소재지 가스공급은 지역 3개 가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설립한 ㈜태호에너지에서 공급을 맡게 되며, LPG공급시설 및 배관망에 대한 시설안전관리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전담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 준공으로 인해 주민들은 20%이상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겨울철 안정적인 LPG공급으로 편리하게 난방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맑고 깨끗한 청송도 만들어 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 "GIS DB구축을 통해 실시간 가스배관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면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울릉군-GS리테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농수축산물 유통 활성화 판매 촉진

울릉군은 10일, GS리테일과 농수축산물 유통 활성화와 판매 촉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울릉군 관계자 및 실무진과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건조장애, 명이 등 우수한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지역적 여건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던 울릉군특산물에 대해 전국적인 홍보와 판매망을 강화하고 또한 농·수·축산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사업을 실시하는 등 양자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산지(울릉군)와 소비자 간 직거래 및 온·오프라인 입점 및 소비 촉진행사 추진 △울릉군 내 우수 산지와 생산자 발굴 및

농산물 전략상품 개발 지원 △울릉군 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 활동에 적극 참여 및 상호 교류 활성화 노력 등이다.

특히 △첫 지원사업으로 GS리테일 전용 '독도 사람 새우맛 라면'을 지난 8월에 출시했으며 이와 함께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해 울릉군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의 큰 호응이 따르고 있다.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는 향후 울릉군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주요 특산물인 건조오징어와 부지깽이, 명이나물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유통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을 약속했다.

김병수 군수는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인 GS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울릉군의 농·수·축산물의 판로가 더욱 확대돼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할 맛나는 생산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울릉군과 GS리테일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동상생의 장이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환 기자



영양군 반딧불이 오지생태탐방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지정

야간에는 반딧불이, 밤하늘의 별 감상 주간에는 생태관찰과 오지 문화 체험

영양군은 수비면 수하리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일원의 '반딧불이 오지생태탐방로'가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문화탐방로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생태탐방로는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적으로 발굴해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급, 광역급, 지역급의 3가지 등급이 있다.

이번에 지정받은 반딧불이 오지생태탐방로는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체험, 학습, 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서 국가급으로 인증받아 국가생태문화탐방

로로서 그 가치가 높다 하겠다.

특히 이곳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월에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에는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고 주간에는 국가급 탐방로에서 생태관찰과 오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수비면 수하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야영장에서 시작해 송방마을, 오무마을을 거쳐 울진군을 연결하는 7.8km의 오지산립탐방로와 하천변을 따라 오무마을까지 걷는 3.8km 거리의 오지경관탐방로, 송방마을과 오무마을 둘레를 탐방하는 3.0km 거리의 오지마을탐방로, 그리고 탐방로

각 구간을 연결하는 1.1km 거리의 탐방로 연결 구간 등 총 4개 구간 15.7km 거리로 지정됐다.

2019년부터 2년간에 걸쳐 국비를 포함해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조성 15.7km, 전망대 4개소 및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2020년 말 탐방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이번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지정을 계기로 2019년 수비면 수하 2리 새터마을에 군 자체 탐방로 0.5km를 개설해 생태관광지역인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내의 수비면 수하 2리 새터마을에서 반딧불이 생태쇼, 반딧불이 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과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 지역을 거쳐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에 이르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을 명실 상부한 최고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권윤동 기자

영덕군, 특별방역 감염병 예방 총력



영덕군이 태풍 침수피해지역 특별방역활동을 펼치며 감염병 발생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군보건소는 방역 상황근무반을 편성했으며 방역기동반 10개 팀 23명, 18개 자율방역기동반이 복구현장에서 방역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 침수지역인 강구시장과 영덕읍 남산리, 축산항, 영해면 벌영리 등의 가옥 주변에서 연막연무, 살균소독 방역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웃 시군과 민간의 방역지원도 늘이고 있다. 울진군보건소에서 방역담당자 5명과 차량 2대로 기동방역반을 편성해 8~9일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의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방역약품 지원도 약속했다. 방역약품 제조사인 국보사이언스(대표 안호영)에서도 태풍 피해 소식을 듣고 200만원 상당의 방역약품을 지원했다.

김성용 기자

울진 야간관광상품 운영

울진군은 가족 및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2018 야간관광상품 울진 야야(野夜)놀이'를 6일부터 7일과 9일까지 3일 동안 운영했다.

3일에 걸쳐 총 12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투어에서는 울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는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를 비롯 월송정 등 울진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고 울진은어디에서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울진 야야놀이에겐 전체 1000여명이 응모해 사연을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인근 대구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지역에서도 참가하는 등 앞으로 울진군 홍보와 외부 관광객들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성 기자

Advertisement for Chongsong Apples. Text: "모양은 비슷해도 맛이 다릅니다" 국가대표 브랜드 파워, 청송사과! Includes images of apples and farmers.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경산시, 노인의 날 기념식
제13회 노인체육대회 열려



경산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 지난 9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산시 청년연합회(회장 정성근)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빈 및 관내 어르신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어르신 체육대회,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어르신과 노인공경을 실천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총 17명에게 표창(도지사 1, 시장 16)을 수여해 격려했고, 어서시 공굴리기, 미니농구 등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치러진 체육대회에서는 어르신들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웃음이 넘쳐나는 축제의 장이 됐다. 박준범 기자

칠곡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거리 꽃길 조성



칠곡여성단체협의회에는 지난 8일 군청앞 떡정이길 맞은편에 여성친화거리 꽃길 조성했다.

여성친화 칠곡 평화길을 조성 위해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칠곡군의 여성친화거리 꽃길을 조성 위해 군청 앞 떡정이길 맞은편 200m의 거리에 국화를 심어 보행자 및 통행자들에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했다. 박노균 기자

'한글날'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서 세종을 느끼다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생명의 신비 찾아 떠나는 별빛기행'

성주군은 가을바람이 부는 지난 9일 '생명의 신비를 찾아 떠나는 별빛기행'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반포 후 572회를 맞은 한글날이며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기념해 '세종이 선택한 생명의 땅,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서 개최돼 더욱 뜻깊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진행한 '태실 이야기'는 전국 태실지 중 성주태실이 가진 가치와 우수성을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로 풀어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태실문화관, 생명문화공원, 선석사로 이어진 산책길 속 오래된 소나무에 아이들 웃음도 방울방울 열렸다.

태실수호사찰인 선석사 앞마당에 꾸며진

협은 선석사에 대한 설명과 곁들여 고즈넉한 산사에 모시 등을 밝히고, 곧 이어진 '태실 별빛 돌기'는 작은 빛에 의지해 명당의 기운으로 가득 찬 태실을 개개인의 작은 소망을 기원하며 즐지어 올랐다.

이어진 작은 음악회에서는 국악, 해금 등 친숙한 우리가라부터 7080음악이 어우러져 가을 밤의 별빛을 수놓았으며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한글날'에 개최된 '성주태실 별빛기행'이 더욱 빛을 발했다.

성주의 가을을 더 느끼고 싶다면 오는 13일 예정된 한계마을 야행 행사와 광대길 공연부터 27일 가야산 가을산행과 문화가 있는 날까지 매주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돼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성주군청 문화관광과(054-930-8371~3)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균 기자



영천한약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침, 뜸, 한방 무료진료서비스
이색적인 체험, 먹거리 큰호응



포은효자탕달이기 체험 모습

전통한약으로 아름답게 조성된 한의마을은 그 자체로서도 관광명소였으며 생태연못과 곳곳에 조성된 정원과 조형물, 무엇보다 저녁이 어스려진 뒤 야간 조명은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한방명약관에는 침, 뜸, 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영천약전거리에는 소포장된 한약재를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한약이 풍성한 거리를 이뤘다.

또한 한방족욕체험, 한방부티체험, 효자탕 달이기 체험, 나만의 약초 화분 만들기 체험 등 한방의 소재를 생활에 밀착하고자 하는 이색적인 체험과 한방을 활용한 먹거리인 약선음식관, 건강샐러드, 한방차카페, 한방디저트를 마음껏 맛볼 수 있어 몸과 마음이 즐거운 축제가 됐다.

한방테마거리로 조성된 사상체질관에는 자신의 체질을 테스트해 내 몸에 맞는 한약재, 한방 음식 레시피 등을 알아보는 체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방문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MBC특집콘서트 한방힐링음악회, 뮤직헤어뷰티쇼, 제13회 영천포도야가씨 선발대회, 2018 영천시민노래자랑 등 시민화합 행사와 각종 한방경연, 한의마을 스탬프 투어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로 승화시켰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미승산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산림복지 확대

고령군에서는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군 미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먼저 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했다.

또한 고령 군민의 이용활성화와 산림복지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고령군민의 비수기·주

중 이용 시 이용금액의 30%를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했다.

또 결제 관련 소비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 예약당일 결제완료 취소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미승산자연휴양림은 비수기·주중 이용 시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30~50% 범위에서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용층에 대한 폭넓은 산림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승산자연휴양림은 관리사무실 진입로 확장 및 소형객실 추가 설치 등 보완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청도군,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 가져

주입식 강의 틀 벗어난
팜페라 공연, 감성 자극
힐링하는 교육 큰 호응

청도군은 지난 8일 군민회관에서 2018년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초청된 휴먼브랜드연구소 더인 박성심 대표는 청도군 공무원들의 사전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직원들의 회식, 업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진단과 대처방법 중심으로 강연을 했으며 교육 참석자들은 4대폭력 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존의 주입식 강의 위주 교육의 틀을 벗어난, 팜페라 그룹 예클레시아의 열정적인 공연을 더해 전 직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힐링하는 교육으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을 청도군수는 성폭력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에 참석했으며 "조직의 문화는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공동으로 누리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윤행 기자

칠곡군 숲사랑소년단, 송정자연휴양림 체험

청소년들이 숲의 즐거움 통해
교육·휴양·문화·치유 등 체험

칠곡군은 지난 9일 '숲사랑소년단 숲으로 가자' 행사를 실시했다.

'숲사랑소년단 숲으로 가자' 행사는 청소년들이 숲의 즐거움을 통해 다양한 가치(교육·휴양·문화·치유)를 체험하는 행사이다.

관내 숲사랑소년단을 운영하는 왜관중앙초, 왜관동부초, 석적 대교초, 약목초 학생 100여명이 참여해 오전에는 바구니짜기, 바구니에 가을 담기, 새송이, 빙고게임 등 숲오감체험을 했고 오후에는 목재체험, 비석치기, 단체줄넘기 등 숲 활동을 했다.

"바구니짜기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숲 속에서 하니 더 좋아요"

송정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된 '숲사랑소년단 숲으로 가자' 행사에 참여한 관내 5학년 여학생은 옆에 숲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바구니짜기에 집중했다.

평소에는 만져보지 못하는 못과 망치로 목재를 이용해 푹푹푹 탱크, 자동차, 꽃, 목재폴로 생크림을 표현한 목재케이크 등 아이들의 창의



성은 무궁무진하다. 비석치기할 때는 꼭 맞춰보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단체줄넘기할 때는 외투까지 벗으며 승부욕을 불태우는 아이들을 보고 학교인솔선생님은 "아이들은 저렇게 놀아야 되는데... 영여 한문장, 수학 공식하나 더 아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놀아야 하는데... 오늘 참 좋습니다"라며 연신 아이들 행복한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다.

칠곡군 관계자는 "숲에서 아이들은 늘 즐겁다. 산림교육분야를 더욱더 확대해 아이들이 행복한 칠곡, 그래서 부모들이 살고 싶어하는 칠곡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노균 기자

신선이 먹는
청도복숭아
CHEONGDO PEACH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 청도
여름 최고의 명품!!
청도복숭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상주시민체육대회 사별면 종합우승



제66회 상주시민체육대회에서 2016년에 이어 사별면이 또 한번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사별면은 이번 체육대회에서 7개 종목에서 골고루 점수를 얻어 우수한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했다. 제기차기, 힘고누기는 1위, 열차경기는 3위를 차지하며 사별면민들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사별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참가선수들은 열정을 갖고 야간훈련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상춘 사별면장은 "이번우승은 각 단체와 면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이뤄낸 결과이며 시민전전은 한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끝났지만 태풍 공레이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태호 기자

군위청소년문화의집 가을체험학습 시행



군위군청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난 8일 문경일대에서 '2018년 청소년문화의집 가을체험학습'을 시행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매년 가을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초등학생 26명과 청소년참여기구 위원 중 자원봉사자 6명이 함께 문경 생태박물관과 예코랄라(석탄박물관)를 방문했다.

이날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자연에너지와 생태자원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성 기자

'2018 국제탄소산업포럼' 17일 구미서 열린다

구미탄소산업발전 방안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탄소소재 활용한 다양한 탄소산업전, 체험존 운영

구미시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탄소산업의 발전방안 마련과 국·내외 탄소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7, 18일까지, 이틀간 '탄소복합재와 고효율 에너지 시대'라는 주제로 '2018 국제탄소산업포럼'을 구미코에서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탄소포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전문 포럼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탄소산업관련 MOU, 해외

초청연사 기조연설 등 내실 있는 개막식으로 그 시작을 알린다.

군나르 메르츠 대표가 'CFRP-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재'라는 주제로 포럼 기조강연자로 나서며, 일본 탄소산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신슈대 엔도 모리노부 교수가 '나노카본 혁신', 영국의 AMRC AMRC(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er) Group은 영국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이며 산업 중심의 제조 R&D 기관

크리스 맥휴 본부장이 '첨단 변환 기술을 이용한 탄소섬유 preforming의 미래'라는 주제로 해외초청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리 일반시민들의 탄소소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재활용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탄소소재로 제작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 전시되며 탄소 골프채 및 탄소 드론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탄소 체험존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세계 탄소섬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를 비롯해 다양한 탄소관련 기업과 연구소 34개사가 원사에서 수지, 부품, 완제품까지 탄소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탄소 산업관을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구미시는 탄소산업포럼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산학연관 상생협력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구미탄소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넘어 우리나라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진 기자



문경시, 전통시장 새로운 활기 불어넣는다



중앙시장 '오! 미자네 청년몰' 개장

문경 중앙시장에서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오! 미자네 청년몰'이 지난 8일 개장식과 동시에 야시장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고윤환 문경시장장을 비롯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님 및 의원,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과보고, 테이프커팅, 청년몰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청년몰 사업은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시비 4억2000만원, 자부담 1억5000만원 총 15억원을 투자해 전통시장 상점가 빈점포 20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상인 입점지원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에 청년을 유입해 활력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 미자네 청년몰은 1층 푸드코트형의 분식&전문 음식 존과 2층 미용 및 특산물 판매장으로 조성됐으며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커뮤니티

룸, 키즈파크 룸, 게임존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 미자네 청년몰 네이밍은 문경 대표 특산물인 오미자를 재미있게 표현해 쉽게 불려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했고 캐릭터 또한 오미자 열매를 디자인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오늘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미자네 청년몰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중앙시장과 함께 문경의 대표시장으로 자리 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의성군, 군정혁신 조직개편 단행 내년부터 시행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18읍면 조직체계 개편 구축

의성군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협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위해 군정 조직을 과(課) 체제로 국(局) 체제로 개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성군의 조직은 현재 2실 1단 11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18읍면에서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18읍면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개편의 주요내용은 일자리와 경제·미래형농업·군민주도형 지역개발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경제·산업분야의 개편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자를 신설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며,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범마을조성과 신설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 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소통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신설해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하고 자치행정국 내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4개과를 관광경제국 내에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과수과 5개과를 도시환경국 내에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산림과 5개과를 배치한다.

3국을 신설해 유사기능부서를 국 단위 내에

통합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장 체제로 전환해 각종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군민 참여 확대와 양방향 소통, 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홍보소통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신설함으로 소통행정,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농업군의 특성을 미래시대 에 부합하고 경쟁력을 내세우기 위해 농정분야 기능을 조정, 농축산과와 원예과수과로 재편해 미래형 농축산업을 육성키로 했으며 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재생과를 신설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통과 일자리 등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기자

김천시, 매목공원 정비공사 준공기념 마을잔치 열렸다

김천시는 김천시 명동동 66번지 매목공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새롭게 단장된 매목공원은 2018년 3월 착공해, 연면적 330㎡, 잔디광장 1707㎡, 워터, 산책로 507m를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했다.

매목공원은 1987년 불용 수리시설을 개발해 주택밀집지역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보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의 목적으로 조성됐다.

또한 저지대에 위치한 매목마을은 주택 인근의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으며 매목공원의 정비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매목마을 황금철 통장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신 김충섭 김천시장께 고마운 뜻을 전하고자 매목주민들 이름으로 감사패를 제작해, 이날 매목노인회 우유길 회장이 전달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 다음 연못분수대, 잔디광장, 워터조성, 산책로를 멋지게 조성한 만큼 멋진 공원을 잘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살기 좋은 매목, 인정이 넘치는 매목마을을 조성에도 다함께 화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상주 Sangju

낙동강 경천섬 문화관광단지 조성 계획도

창리 지방산업단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교통 요충지)

낙동강(경천섬) 문화관광단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상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 영주 예천 봉화

봉화군 드림스타트 가족
제주도 일원에 참여여행



봉화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8-10일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족 등 34명과 함께 제주도 일원으로 참여여행을 다녀왔다.

‘미래설계 가족문화탐방’이란 주제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사업 참여 종료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의 제한된 활동 공간을 확대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항공우주박물관, 아쿠아플라넷, 수목원 테마파크 등을 체험하고 동백 수목원 등 제주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권오영 주민복지실장은 “아동들이 중학교 진학 후에도 잘 적응할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스스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노후 상수도관 교체 ‘순조’



안동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가지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화동을 비롯한 대석동, 동부동, 광석동, 옥야동, 상야동 일대 7개 지구에 대해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화된 상수도관 8km를 교체한다.

현재 공정률은 40%를 보이며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시가지의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2018 포레스트페스타 안동’ 티켓 오픈

경북도관광공사, 13일 온프레피움 가을 저녁 힐링주는 이색 체험공연 엘리스 미션 워킹·선셋 뮤직 페스타

경북도관광공사는 오는 13일 토요일 ‘2018 포레스트페스타 안동’을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온프레피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2018 포레스트페스타(FOR:REST FESTA)는 휴식을 위한(For Rest) 숲(Forest)을 의미하는 행사로 이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온프레피움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체험 공연이다.

포레스트페스타의 메인 프로그램인 ‘엘리스 미션 워킹’은 루이스 캐럴 원작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바탕으로 한 이색 체험이다.

참가자는 직접 주인공 엘리스가 돼 온프레피움 일대를 모험하고 동화 속 캐릭터들을 만나 스탬프 미션을 수행하면서 ‘너만의 지도를 만들

라’는 메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코스는 가벼운 걷기와 미션, 포토존으로 구성돼 연령과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엘리스 미션 워킹’ 후에는 라이브 재즈 공연 무대인 ‘선셋 뮤직 페스타’가 열린다.

석양 아래 실력 있는 재즈 뮤지션의 공연을 보면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푸드트럭, 플라마켓과 페이스페인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2018 포레스트페스타’가 열리는 온프레피움은 ‘온 뜰에 활짝 피움’이라는 순우리말로 열대 온실과 허브가든, 파머스랜드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허브 테마공원이다.

최근 핑크블로로 주목받으며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장소다.

2018포레스트페스타를 제작한 커무브(대표 원준호)는 2030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색 페스티벌인 ‘좀비런’과 ‘에일리런’ 등을 기획한 스포츠문화프로덕션이다.

이번 엘리스 미션 워킹은 ‘좀비런’과 ‘에일리런’의 노하우와 미션 요소가 녹아있는 기존의 스릴러 장르와 아울러 새로운 장르의 힐링 체험으로 티켓 오픈 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온프레피움에서 열리는 ‘2018 포레스트페스타’는 11일 목요일까지 네이버 N예약에서 50% 할인된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티켓은 500매 한정으로 판매된다.

권오탁 경북관광공사 지사장은 “이번 포레스트 페스타 안동 행사는 경북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화 이벤트로 매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안동문화관광단지와 온프레피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영주시, 2018년 공공비축미곡 6만5467포 매입

18일 산물벼·내달 6일 건조벼
관내 농협자체 수매 31일까지

영주시는 정부의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산물벼는 오는 18일부터, 건조벼는 11월 6일부터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주시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 6만5467포/조곡40kg기준(산물벼 33,000포, 건조벼 32,467포)로 지난해 6만568포대보다 4899포대가 증가한 물량이다.

매입품종은 산물벼와 건조벼 모두 일품·추청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그 중 산물벼(영주농협 DSC 22,905포대, 영주연합농협RPC 10,095포대)를 먼저 수매할 계획이다.

올해 시장격리곡 매입 계획은 농식품부에서 벼 생산량추이 및 전국산지 쌀값 동향 등을 파악 후 확정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

12월) 전국 평균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산물벼는 포장비용(40kg당 872원)등을 차감한다.

매입대금은 우선지급금은 지급치 않고,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



일에 지급해 농가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종정산은 쌀값 최종 확정이후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친환경 벼 매입, 품종검정제 도입, 논 타작물 재

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특히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수매참여 농가 전수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의 임의하에 시료(600g)를 채취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는 농가는 5년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이하 혼입은 페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800kg)매입 등참과 함께 벼 매입품종 준수·규격포대 사용 및 건조 상태(수분 13~15%)와 중량준수는 물론 음면동별로 지정날짜에 수매품을 출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별도로 관내 농협자체 수매는 10-31일까지(영주농협DSC 97,500포대, 영주연합농협RPC 125,000포대)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태풍피해농가 일손돕기 총력

군청·면사무소·자원봉사센터 등
100여명 봉사활동 복구에 구슬땀

봉화군에서는 지난 9일 태풍 풍레이로 피해를 입은 몰야면 해당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군청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봉화군자원봉사센터, 몰야면사무소 직원 등 100여명이 봉사활동에 나서 태풍으로 떨어진 낙과를 수거하고 쓰러진 과수를 세우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태풍피해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직원들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

럼 두 팔 걷고 도움을 줘서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병남 봉화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긴급요청에 신속히 봉사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피해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대성 몰야면장은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재해피해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피해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에서는 의용소방대 40명, 적십자 여성봉사회 30명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상기 기자

예천군, 제13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출산육아용품 행복나눔 바자회 등
임산부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예천군은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10일 예천교회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운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인 10월과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의미하는 날로,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예천군보건소, 예천교회, 예천권병원, 예천군 한자녀더갖기협의회 등 지역기관과 함께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출산친화적분위기를 조

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아이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으로 ‘사랑스런 내 아이에게 편지쓰기’와 임신·출산 OX퀴즈 및 골든벨,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리 캠페인과 더불어 임산부를 위한 출산·육아용품 행복나눔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임신·출산지원과 관련된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나눔 바자회 행사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힐링영주, 행복영주!

새로운 성장, 더 큰 영주!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중심에 서다”



영주시

2관왕 2연패' 한계 모르는 전민재... 그녀에게 트랙은 놀이터

여자 육상 100m
결선 14초98, 1위

“전민재는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선수다.” 10일 신수철 장애인육상 대표팀 코치는 ‘애제자’ 전민재(41·전북장애인체육회)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전민재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여자 육상 100m(스포츠등급 T36) 결선에서 14초98,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2관왕 2연패의 위업을 일궈낸 직후다.

대한민국 장애인 육상 간판스타인 전민재는 8일 여자 200m 금메달에 이어 대회 두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주종목 100·200m, 2연패의 위대한 기록을 달성했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 200m 은메달,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0m 은메달리스트인 전민재는 장애, 성별, 나이 등 세상의 모든 장벽을 넘어선 선수다.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발목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투혼의 질주를 펼치며 끝내 목표를 이뤄냈다.

기느다란 발목에 두터운 테이프를 뚫어낸 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시상대에 선 그녀가 작은 손가락으로 가슴의 태극마크를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전민재는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해온 ‘스승’ 신 코치와 함께 2관왕 인터뷰에 나섰다. 신 코치는 “민재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밤새도록 달릴 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다. 장애인, 비장애인 선수를 통틀어서도 정말 특별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라고 소개했다.

전민재는 훈련장 뿐만 아니라 이천훈련원

안에서도 늘 강종강종 뛰어다닌다. 생활 속 훈련이 몸에 배 있다. 신 코치는 “일상생활이 훈련이다. 생활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가 잘 돼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재는 끊임없이 달리고, 항상 즐긴다. 나이가 무색하게 체력관리를 정말 잘하는 선수다. 모두가 칭찬할 만큼 누구보다 많이 노력하는 선수,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는 선수”라고 말했다.

지난달 아시안게임 결단식에서 “이번엔 2등이 목표”라던 그녀의 연막 작전에 깜빡 속을 뻔했다. 그녀에게 아시아 무대는 좁았다. 적수가 없었다. 100m, 200m 레이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자신의 베스트 기록에 근접한 호기록을 냈고, 2위 선수와는 2초 이상 차이가 났다. 1977년생, 마흔이 넘는 나이에 최고기록 페이스를 유지하고, 스무살 이상 어린 선수들과 경쟁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물었다. 신 코치는 “같은 T36 등급이라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민재만의 특성이 있다. 무엇보다 민재는 보통 선수보다 정신적으로 강하다. 무엇보다 즐기면서 열심히 하니 최고 기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코치는 “나도 이 선수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계속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까지도 몸 상태에 따라 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에 전민재는 있는 힘껏 손사래를 쳤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마지막 무대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자카르타 트랙은 그녀의 아시안게임 마지막 무대였다. “마지막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했다”고 털어냈다. 신 코치는 “인전에 이은 2관왕 2연패는 육상선수

로서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선수도 나도 너무 행복하다”며 미소 지었다.

전민재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66세’ 신 코치와의 동행을 열망했다. “코치님과 2020년 도쿄까지 같이 가고 싶느냐”는 물음에 전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 코치는 “3년간 민재를 지도해왔고 생활 보지도 함께 하면서 잡자는 시간만 빼고 늘 같이 지내다보니 서로를 너무 잘 안다. 내게 민재는 딸이다. 민재에게 내가 아버지 같다. 그런 교감 덕분에 잘되고 있다”며 웃었다. 신 코치는 “민재가 2020년까지 같이 가고 싶다고 한다. 나도 육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장애인선수 지도자는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회 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코치는 스승으로서 애제자 전민재를 향한 바람도 잊지 않았다. “지금처럼 계속 즐기면서 달리면 좋겠다. 국가를 위해 마지막 도쿄 패럴림픽에서 메달 목표를 꼭 이루길 바란다.”

런던과 리우에서 2연속 은메달을 획득한 ‘행복한 스포린더’ 전민재의 2020년 메달 목표는 또렷하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서 100m 최고기록(14초70), 200m 최고기록(30초67)을 넘는 것이 목표다. 2-3등이 목표이지만,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1등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코치의 말에 전민재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힘 없이 달리는 선수, 전민재에게 달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전민재가 예의 함박웃음으로 답했다. 이심전심, 신 코치가 말했다. “민재에게 달리는 것은 ‘놀이터’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달린다.”



전민재가 10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여자 육상 200m(스포츠등급 T36) 결선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시상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조기성이 9일 오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S4(1-4) 결선에서 역영을 펼치고 있다.

‘리우 3관왕’ 조기성, 등급 약재 속 자유형 100m ‘빛나는 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 수영 3관왕 조기성(23·부산시장애인체육회)이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서 빛나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기성은 9일 오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대회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S4(1-4) 결선에서 1분25초80을 기록, 전체 8명 중 두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일본의 스즈키 다카유키가 1분22초81의 대회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S1-4등급이 함께 경쟁하는 조기성(S4)의 주종목에서 S5등급이던 스즈키의 등급이 S4로 조정되는 약재가 있었다. 장애인 스포츠등급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장애가 덜하다. 자신보다 장애가 가볍고 기록은 비슷한 스즈키와의 경쟁을 앞두고 조기성은 “당일 컨디션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밥먹듯이 훈련을 해왔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모두 펼쳐보이면 제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반신 절단 장애인 스즈키는 스타트에서 점프하며 출발했다. 물속에서 바를 잡고 출발한 조기성과 시작부터 차이가 났다. 그러나 조기성은 치열하게 따라붙었다. 50m 턱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그러나 발로 벽을 칠 수 있는 힘을 지닌 스즈키와 틈에서 승부가 갈렸다. 2위에 그쳤지만 마지막까지 포기를 모르는 조기성의 역영은 눈부셨다.

뇌병변 장애로 인해 하체를 쓰지 못하는 조기성은 13세 때인 2008년 ‘수영을 하면 걸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희망을 품고 첫 물살을 갈랐다.

눈부신 재능에 타고난 강한 의지, 타고난 성실성이 더해지며 기량은 일취월장했다. 스무

살 되던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 200m 금메달을 휩쓸며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이듬해인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패럴림픽의 새 역사를 썼다. 사상 최초로 자유형 50, 100, 200m(S4)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쓸며 ‘패럴림픽의 박태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리보다 강력한 폭풍 스트로크로 세계를 제패했다.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자유형 2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리우 패럴림픽 직후 첫 국제대회에서 ‘등급 약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혼신의 레이스로 빛나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조기성은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50, 100, 200m에 도전한다. 10일 펼쳐질 자유형 200m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괴력소녀’ 강정은 배영100m 값진銀 ‘아깝다 2연패’



강정은이 9일 오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영 여자 배영 100m S14(지적장애) 결선에서 역영을 펼치고 있다.

한국 여자 장애인수영 간판 강정은(19·대구시장애인체육회)이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영 여자 배영 1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정은은 9일 오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대회 수영 여자 배영 100m S14(지적장애) 결선에서 1분14초16의 기록으로 전체 8명 중 두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일본의 후쿠이 가스미가 1분13초76으로 금메달을 가져갔다.

혼신의 역영을 펼쳤으나 아쉽게 2연패를 놓쳤다. 강정은의 2연패 경쟁자로 손꼽혔던 홍콩 에이스 찬 유이람이 1분15초32로 3위를 기록했다.

강정은은 4년전 안방에서 열린 인천 대회에서 15세의 나이에 여자배영 100m(S14), 개인혼영 200m(SM14)에서 2관왕에 올랐던 ‘괴력소녀’다. 당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스타덤에 올랐었다.

선창용 장애인수영대표팀 감독은 “(강)정은이는 한국 장애인 여자 수영, 전 종목 최고 기록을 보유한 독보적인 에이스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 동메달을 따냈다”며 기대를 표했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영 단일팀 ‘코리아’ 첫 메달... 남북 2명씩 시상대 오른다

남북 단일팀 ‘코리아’의 장애인 체육 사상 첫 메달.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남자계영 400m 34P 동메달 시상식이 10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열린다.

남북 수영 단일팀은 지난 8일 오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계영 400m 34P 결선에서 4분24초95의 기록으로 일본(4분07초18) 중국(4분08초01)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목표했던 사상 첫 메달을 획득했지만 일본의 실적 해프닝과 결선 출전 선수만 시상대에 오를 수 있다는 규정 논란 속에 시상식이 이뤄졌다.

남자 계영 400m 예선에는 정국성(21·북) 전형우(16·충남) 김세훈(21·울산 북구청) 심승혁(22·북) 등 남북 에이스들이 함께 나섰다. 결선에서 메달을 위해 남북 선수들만 나섰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단체전은 예선, 결선 출전선수 전원에게 메달이 수여되기 때문에 남북 선수들의 경기력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예선은 남북선수 각 2명, 결선은 남북선수들만 출전하기로 사전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남측 에이스, 김세훈, 권원화(19·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동규(37·부산시장애인체육회), 권원(27·부산장애인체육회)이 역영 끝에 사상 첫 동메달을 따냈다.

경기 직후 현장을 관찰하는 TD가 세계장애인수영연맹(World Para Swimming) 시상 규정을 들어 “남북 선수들이 함께 시상대에 오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릴레이(계영, 혼계영) 경기의 메달은 예선, 결선을 뺀 모든 선수들에게 주어진다. 예선만 뺀 선수의 메달은 선수단장(Team Leader)을 통해 전달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남북단일팀 7명의 선수 중 결선 출전한 남측 4명만 시상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와 조직위 측을 만나 남북단일팀의 취지를 설명하고 남북 선수가 함께 시상대에 올라야 한다고 설득했다.

9일 조직위가 남측 2명, 북측 2명 등 4명의 선수가 시상대에 오를 것을 결정했고, 선수단은 장시간의 토론 끝에 예선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남측 김세훈, 전형우, 북측 심승혁 정국성이 코리아를 대표해 시상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대회’ 수영 남북 단일팀은 은빛 물살을 갈랐다. 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수영 계영 34P(1x100) 결승 경기.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일본의 실격으로 은메달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남북 단일팀이 장애인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진군, 민선7기 100일... 군민중심 현장행정 추진

‘군민주권시대의 개막’ 선언 전찬걸 울진군수 취임 100일

‘소통행정’을 통해 군민이 주인되는 군민주권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전찬걸 울진군수가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통행정! 현장행정! 비전울진!’ 3대 국정비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전찬걸 군수는 “군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철학으로 취임 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군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민의수렴으로 4년 후 울진의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고민한 100일이었다.

특히 전찬걸 군수는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울진군과 서울특별시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울진관광객 유치,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청소년 문화교류 등에 대해서 양 지역 간 협력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연내 상호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구상과 포부를 펼치고 실적을 얘기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군민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그동안의 성과와 보람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취임 100일 동안 산적한 현안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역량 결집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민선7기 긍정방향을 살펴보면,

□ 활력있는 경제울진 건설

먼저,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신산업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활력있는 경제울진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정책으로 인한 신항을 3·4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신항을 3·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울진군은 정부의 원전정책 대안으로 △신항을 3·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소통과 대화의 창구 마련 △국가에너지 정책수립 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정책 반영 △원전소제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지역산업의 보안을 위한 지속성있는 원전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통SOC 기반시설 확충이 지역발전의 선도적 요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필수적 조건으로 보고 광역도로 교통망 조기구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의 H차 신경제지도의 한 축인 환동해 경제벨트 완성을 위한 동해선을 복선전철화하고 울진구간 동해안고속도로를 연결

해 통일시대 대비 물류허브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동서5축(보령~울진간) 고속국도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 만들 구상이다.

지역의 명품 농·수·특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와 홍보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친환경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군비지원 ‘무농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급, 작물재배 지역별 집단화, 한우 축산단지 조성, 유기질(퇴비) 지원예산 확대 및 직불금 군비부담 증액 등을 통한 안정적인 농어가소득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추진 동력이자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신항을 3·4호기 건설재개, 원전관련 기관 유치,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대책 마련, 다목적 인력뱅크 설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획기적인 귀농·귀촌 창업 지원으로 젊은이가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 5만 지키기’ 실현을 위한 동향확산을 위한 결혼장려 및 전입인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희망있는 복지울진 완성

두 번째는 희망있는 복지울진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전찬걸 군수는 행정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살피는 촘촘한 복지로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일상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 및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인력과 기능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자립홈을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및 각종 체험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주차의제도 시행, 최신장비를 보강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복지사들이 늘어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수당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품격있는 관광, 문화울진 정착

세 번째로 품격있는 관광, 문화울진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찬걸 군수는 기존의 관광자원과 인프라 중심 개발위주 관광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광소비자 관점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중심의 관광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우수한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북부 해양과학·온천·금강송 생태체



전찬걸 울진군수

험 △중부 해양체험/스포츠 △남부 해양마리나/해양·온천치유 등 3대 핵심 관광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화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 후포국제마리나항, 원남골프장 사업을 완료해 우선 국내관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킨 후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립해양치유시범센터, 금강송에코리움 등 해양, 산림, 온천치유가 결합한 치유관광상품 개발, 코스별 연계 관광셔틀버스 및 울진관광 패키지 할인권 운영, 특화된 먹거리 골목 조성 등 하지만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오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해선 개통과 국도 36호선 직선화공사 완공을 대비해 울진군의 관광패러다임을 체류형 관광문화로 정착할 예정이다. 우선 동해중부선 울진구간 7개 역사는 테마별로 우리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울진역사는 잔여 철도부지를 활용해 시외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복합형 환승센터로 건립 추진한다.

국도 36호선의 기존 국도를 복원해 옛길 순환형으로 친수공간을 활용한 Slow트래킹 코스로 개발한다. 향후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요 관광거점지역에 대규모 숙박단지 유치와 함께, 기존 숙박시설 환경개선 지원 및 오토캠핑장, 카라반 등 대체 체류형 시설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품격 높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북면 주민의 일원에 관광형 예술인 마을을 조성해 역량있는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주요 관광지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문화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죽변비상할주로는 조속히 폐쇄해 지역문화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남부지역 작은영화관 건립, 흥부문화센터 건립, 유럽문화회관, 죽변면도서관 신축 등 지역별로 군민들에게 고른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동해선 개통과 국도36호선 직선화 완공과 함께 울진이 가진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동해안 최적의 관광

힐링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 행복 가득한 건강한 울진 실현

네 번째로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울진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새로운 울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군민 친절 배가 운동’을 공식사회는 물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첫 출발을 시작했다. ‘나의 친절이 울진을 행복하게 한다.’는 방침 아래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작, 매일 업무 시작 전 각 실과, 읍면별로 다양한 방식의 친절운동을 실천 중에 있다.

앞으로 전찬걸 군수는 군민들과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의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비롯해,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지역 울진군청 제2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소통행정과 현장군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군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점진적 간을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미취학아동과 장애인들에게 울진군의료원 기초진료비를 100%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강화 및 치매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등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시설 확대, 주요 거점지역 키즈카페 설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공격돌봄 기능을 강화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울진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해외 홈스테이 교류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카페 개설, 체육단체별 주니어클럽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학업공간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에 대학생 자율형 울진학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읍·면·소제지의 거점기능 강화와 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화면, 기성면, 북면, 금강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울진금강송 명품 숲을 산촌거점권역으로 육성하고 연호근린공원 조성, 월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취약지 ‘1000원 행복택시’ 확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자투리땅을 활용한 간이 주차장 조성, 도로변 버스승강장 내 조명등 설치, 보안등 확대 설치하는 등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앞으로 민선7기의 긍정방향을 토대로 체계적, 종합적인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울진의 미래 예측가능한 발전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형성 기자



신항을 3·4호기 성명서 발표

6.25참전 美 장병 자녀 '명예 칠곡군민' 되다

칠곡군, 美 장병 제임스 엘리엇 아들·딸 초청 명예 군민증 수여



구미시에서는 10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나노테크(주) 김정현 회장과 서주홍 연구소장, 이준호 관리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헬스케어제품 448개(310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영주시 휴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원욱, 김삼재)는 지난 8일 휴천동 주민센터에서 3개 단체(사업체)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도군 청도읍은 10일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청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선산보건소와 현일중학교는 지난 8일 현일중학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마음성장학교 운영 현판식을 가졌다.



상주시는 경북도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할매할배의 날'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6일, 1~3세대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문화공유와 놀이를 통해 하나가 되는 '할매할배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행사를 지역 어르신들과 청소년, 아동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주실내체육관 구관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 칠곡 군민의 심금을 울렸던 6.25전쟁 참전 美 장병의 아들과 딸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칠곡군을 찾는다.

칠곡군은 美 육군 중위 제임스 엘리엇(James Elliot)의 아들 집 엘리엇(71세)과 딸 조르자 레이번(70세)을 초청해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칠곡군이 초청한 자매의 아버지 엘리엇 중위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8월 호국의 다리 인근에서 작전 도중 실종됐다.

엘리엇 중위의 부인 알던 엘리엇 블랙스톤은 평생 남편을 기다리다 2015년 암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유해를 호국의 다리 인근에 뿌려 65년 만에 부모님의 사후 재회를 도왔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칠곡 군민들은 이들 자매의 초청을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은 물론이고 국방부, 국가보훈처,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연락을 취하는 등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아 이들을 초청하게 됐다.

10일 한국에 입국한 집 엘리엇과 조르자는 11일 칠곡군에는 있는 호국의 다리에서 백선기 칠곡 군수와 함께 현화하며 낙동강에서 영면을 취하고 있는 부모님을 만난다.

또 호국의 다리 밑에 마련된 자신들의 슬픈 사연을 소개한 한글과 영문으로 된 추모 안내판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열리는 칠곡보 생태공원으로 이동해 AR(증강현실)로 엘리엇 가족의 아픔을 표현한 '나를 기억해줘' 코너로 이동한다.

이들은 아버지의 장교인관, 부모님의 만남, 아버지의 사망, 부모님의 사후재회를 표현한 4개의 대형 그림에 태블릿 피시를 비추어 증강 현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접하게 된다.

또 육군공병 대대가 가설한 칠곡보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을 연결하는 430m 부교를 건너며 세계평화도기원한다.

12일은 6.25전쟁 중 미군 장병이 학살된 303고지를 방문해 미 장병을 추모한다.

이어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백선기 칠곡 군수로부터 명예 군민증을 수여 받는다.

또 이들은 주 무대에 올라가 관람객 앞에서 68년간 낙동강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의장대는 LED 풍등을 띄우며 아버지의 영면을 기원한다.

딸 조르자씨는 "아버지의 희생과 우리 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칠곡군민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명예 군민증을 받은 칠곡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전쟁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초청한 백선기 칠곡군수는 "국적을 떠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엘리엇 가족의 슬픈 사연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군의 도시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가을, 클래식 통기타 선율로 물들다 12일 '이성우와 함께하는 기타이야기'

클래식 통기타의 선율을 따라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대구에서 열린다.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에 수성아트피아 무학홀에서 '이성우와 함께하는 기타이야기'를 공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연은 수성아트피아가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고자 기획한 '2018 아티스트 인 대구'의 두 번째 무대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성우가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그는 프란시스 폴랑크의 '사라방드',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기도하게 하소서', 바흐의 '칸타타 제147번' 등을 연주한다.

베를린 국립음대를 거친 이성우는 한국기타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은 실력파다.

그는 유럽과 호주, 아시아 각국에서 순회공연을 돌며 음악 평론가와 클래식 애호가로부터 뛰어난 곡 해석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성우는 2007년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용재 오닐과 함께 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2017년 신지아와 함께 한 '오래된 노래' 등 16개의 음반을 발매했다.

김형국 수성아트피아가 관장은 "이번 공연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기타의 선율을 느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동천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반찬 나눔



대구시 북구 동천동 새마을부녀회가 10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밀반찬을 만들어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10일 오전 11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새마을부녀회원 15명은 열무김치, 제육불고기, 멸치볶음 등 밀반찬을 손수 만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20가구에 전달했다.

박현숙 새마을부녀회장은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지만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밀반찬으로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천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삼계탕나눔행사, 반찬나눔행사, 김장김치나눔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김창균 기자

대한민국 행복꿈들

올 여름휴가 우리 농촌에서 즐기세요

농촌을 즐기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농촌에서 즐기세요!
즐거움이 가득한 휴가

농촌에서 힐링하세요

어머님 같은 농촌에서 여유 마음으로 힐링이 되는 편안한 힐링이 가득한 휴가

농촌과 나누세요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나눔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힘입어 건강한 농촌을 응원하는 휴가

※이 광고는 농협 팜스테이 사진 공모전 참여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농협 팜스테이 및 고향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농촌 바캉스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QR코드로 확인하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www.mgapple.or.kr

2018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문경사과축제

MUNGYEONG APPLE FESTIVAL 2018

10. 13  ~ 10. 28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주최 |  문경시 주관 |  MFTF 새마을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문경사과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NH 농협문경시지부  DGB대구은행  대구경북농협  문경농협  문경사과발전협의회